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9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5. 23(금) 14:00~16:41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9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경영지원팀 전희영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현재 11인의 위원님들 중에 8인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원은 되었구요. 다만, 성기숙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재 김진각 위원님도 온라인으로 입장할 예정이신데요. 조만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 프로젝트 지원대상 결정의 건 및 추가 공모계획(안),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등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5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전차 회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4월 25일에 개최한 제395차 전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어서 6건은 원안의결 그리고 1건은 유보가 되었구요. 5월 8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96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3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37호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 프로젝트 지원대상 결정의 건 및 추가 공모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시각예술창작주체 공간지원 사업은 지난 정시공모 때 이미 한 차례 심의를 했었는데 당시 잔여예산이 남아서 추가 공모를 진행한 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유형과 건축 유형으로 지정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총 3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3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건축 분야 2팀과 미디어 분야 1팀이 선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선정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유형은 1번 ‘○○ ○○○○ ○○○○○○○’ 이 장성에서 마을의 지리적 이야기를 담은 약간 공공미술 쪽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파빌리온 등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2번 ‘○○○’의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9월 키아프 프리즈 기간에 삼성 코엑스 물 앞에 있는 옥외 전광판을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협력의 형태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잡아놓고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섭외한 우리나라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그때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외 전광판은 주로 디자인적인 콘텐츠가 많이 송출되는데요. 저희는 정연두, 임민욱, 최찬숙과 같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우수한 한국작가들을 선별해서 해외 귀빈들이 많이 모이는 미술행사 주간에 이 작품들을 잘 선보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의 경우에는 세운광장에, 세운상가의 역사 등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한 달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는 2주 정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선정으로 심의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주셔서 한 달까지 해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시 12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모는 지난 3월에 총 3가지 유형으로 의결을 받았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공모는 공모계획 공고가 조금 더 늦춰져서 이번에 상세 공고문을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에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건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남준 탄생 100주년이 2032년입니다. 그래서 백남준 작가 인지도에 비해서 아카이브와 출판 구축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국내에는 ‘백남준 아트센터’, 국외에는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 등과 함께 공동으로 흠어진 아카이브를 공동 구축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대성한 출판을 목표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10쪽을 보면 심의기준이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심의기준과는 달리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대효과에 3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책임 있는 공간운영을 통해서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 되는가?” 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사기준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이 무슨 얘기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심의기준을 사람들 간에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만약 ‘책임 있는’ 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 ‘책임 있는’ 이라는 것은 뭐다.” 라는 것을 달아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수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책임성’ 이라고 하면 돈의 문제도 있고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는 심의기준에 대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잠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대효과에서 맨 밑에 “예술현장에서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이고요. 제가 심의기준으로 다른 것을 봤어도 기대효과에 30%로 해서 뭉텅거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세부내용이 5개 있는데 2개는 10%, 1개는 15%, 1개는 몇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간에 평가를 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쪽 보는데 “문화예술기관 다른 기관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왜 하던 대로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전에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업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구문모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보다 더 심의기준을 설정할 때 구체성을 가지고 객관적 계량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더 공정한 심사평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의견이세요.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계량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누가 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책임 있는 공간 운영을 하는 20%로 결정할 거야.”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1번하고 2번을 30%로 비중을 줄 거라고 하면 벌써 오차가 생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저도 여쭙볼게요. 조사연구에 1억 원이 들어가네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이것은 워낙 중장기로 바라봐야 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백남준 아카이브가 국내외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집대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판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작은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작가의 전체 작업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면 조금 좋은 연구진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구성원들도 참여가 필요하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느라 생략을 했는데요. 어제 게티미술관과 예술위원회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티미술관이 아카이브 쪽으로는 세계적인 기관인데요. 공동 협업을 통해서 산재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업 자체가 크고 저희 실무진들이 올해 방문을 하고 게티미술관에서도 한국으로 가을에 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수행하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시각예술창작주체와 연계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 정시공모에서도 개인 및 단체에 최대 1억 원으로 동일하게 단가를 설정해서 통일성 있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냥 중장기 연구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게티미술관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 없이 이것을 잡아놓았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 시키는데는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가 먼저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게티미술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게티미술관 측의 입장과 우리의 구체적인 조사연구 설계가 필요해서요. 올해 다행히 이 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분야로 한정해서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때 구체화 되어서 공모를 하지 못했던 것은, 의결을 받았지만 하지 못했던 것은 게티미술관하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공모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게티미술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게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데 연구원을 저희들이 섭외해야 되고 한국 연구원은 우리가 게티로 파견하고 게티에서는 한국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의 기초설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갑영 위원 :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연구내용은 백남준이죠.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어떤 덩어리의 연구가 있는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백남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인데요.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설계과정에서의 비용을 책정하는 거죠.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제목이 중장기계획이 아니고요.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로 되어야죠. 중장기연구라고 하면 중장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정갑영 위원 :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중장기. 그러니까 보통 중장기연구계획이라고 하면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문체부도 하고요. 그러면 해야되는 연구 덩어리들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여비가 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연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냐는 말이죠.

구문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정갑영 위원님이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에 1억 원이 들어가면 여기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항목별 비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조사인지 출장인지를 알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세부 내용이 들어가면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문제가 나올 겁니다. “조사연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냥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구체화 시키지 않은 겁니다. 전체 과정의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중장기연구를 한다는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구체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다은 시각다원예술팀장 : 13페이지 표를 잠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필수항목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라는 것에 있어서 기초연구 조사를 하시되 국내외 주요 아카이브 현황 조사를 하셔야. 그리고 아카이브를 메타 데이터로 목록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돈해 주셔야. 그리고 출판계획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협업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도 병행하실 수 있는데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구술채록이나 출판, 심포지엄을 하실 수 있다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시는 했지만 제목은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러면 제목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보니까 선택에서 만약 이것을 그냥 한다고 하면 구술채록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이게 용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정하고 협의해서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이 공모의 지원 세부 내용을 주셨는데요. 비용이 1억 원이면 사실 조사 리서치 비용으로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이를테면 인건비가 몇 %, 항공료는 몇 %라는 식으로 해서 %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신청서 항목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지금 백남준에 대해서는 처음도 아닐 것이고요. 자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경기도 백남준 미술관도 있고 백남준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연구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조사연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백남준에 관한 연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스터디 하고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것을 해 달라는 요청의 공고문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 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백남준 미술관, 백남준 기념재단, 백남준과 연관되어있는 모든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나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단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백남준에 대한 정신과 철학이 정립되어서 백남준이 미술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명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게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탄생 100주년이 2032년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립해 줘야 하는데 백남준 기념재단에서 할 역량도 안 되고 백남준 미술관이 도립미술관이라서 경기도에서 할 역량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러던 차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은 이 예산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연구조사를 하고 그래도 여지가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정갑영 위원 : 연구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해는 가는

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자문회의라도 하고 스크린을 위한 전문가들 모임을 거쳐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비용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대강의 개요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될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제목만 놓고 1억 원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러면 1억 원 정액이 아니라 최대 1억 원.

장미진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뭔가 지원할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냥 백남준 기념관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사실 맞는 통로가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공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액수를 다른 사업에 쓰신다고 했는데 공모가 나간 개요는 그 전의 공간지원사업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12개 단체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미술관, 박물관 등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떨어지고 ‘○○ ○○○○ ○○○○ ○○○’, ‘○○’, ‘○.○○’ 는 제가 보기에 공간을 운영하는 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간운영지원사업..... 제가 지원서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공간운업을 하는 팀은 아니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하셨나 싶을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설명을 해 주세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이 사업이 공간사업 잔여예산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조건에도 이게 외부 프로젝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간, 기존 공간을 지원할 때도 공간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라는 조건으로 해서 단체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성이라고 할지라도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장미진 위원님이 묻는 거는 공간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선정된 단체가 공간이냐 아니냐인데요. 공간인지 아닌지?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인지를 얘기해 줘야죠.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공간운영 단체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3개 신청단체는 모두 다 특정 전시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다 수행하면서 외부 파빌리온이나 미디어파사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공간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지원조건이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하는 팀이냐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팀인지가 궁금합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가 운영하는 공간이?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강릉에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를 여쭙봤는데요. ‘○.○○’는 아까 세운상가에서 공간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강릉의 공간에서도 같은 프로그램 내용의 전시도 하고 외부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가 운영하는 공간 이름이 뭐고 자기가 공간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하는 공간을 좀 알려주세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경우도 공간운영지원 사업이 된 팀을 보면 A라는 극장 안에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요청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 정도는 저희가 들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인 것 같아서요. 지금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서면으로 하면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타 장르에 대한 서면 의결을 원하실 때 제가 “어디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팀의 공모서나 구체적인 사업안이 올라와야 저희가 검토하고 의결을 하는데 그냥 의결서와 그 팀이 어떤 팀이라는 명칭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나 공모서를 같이 첨부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의 요청인 것 같으니까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단순히 궁금한 것 하나 여쭙자면 11쪽을 보면 행정 결격이 2건으로 ‘○○○○○’이 결격사유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은 제주도에 있고 콜렉션도 아주 훌륭하고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도 많이 소장하고 전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신청서양식 미준수라고 해서 행정 결격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결격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관련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 거기에서도 독자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문예위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문예위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이 기존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나, 국내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남준 작품들은 현대미술관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결과치에 대한 어떤 점에서 기대효과, 가치창출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우선 질문해 주신 ○○○○○은 저희도 기대를 갖고 신청서 열람을 했는

데 아쉽게도 파일첨부를 잘못 하신 것인지.

성기숙 위원 : 뭐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파일첨부를 잘못하셨는지 빈칸이 상당히 많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행정 결격이 되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만요. 그런 경우에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순 실수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저희가 다년간 지원심의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 : 역작용들이 또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왜 여기는 편의를 봐주냐?”

성기숙 위원 : 형평성?

정병국 위원장 : 예. 마감일이 있잖아요. 마감일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도 받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추가적으로 받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마감 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작성과정에 있다고 하면 피드백을 드려서 보완이 되는데요.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리고 백남준은 오시기 전에 간략히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카이브들이 국내에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고 해외에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산발되어 있는 것들을 100주년 기념해서 다 하나로 집대성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공동추진을 해서 공동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저희가 연구조사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해서 백남준 미술관도 공유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게티와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쪽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재산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낡은 역사 이래 한 영역을 창시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려야 하는데 그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백남준문화재단인데 거기는 예산도 적고 아무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남준 미술관은 도립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중장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재단이나 미술관이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기숙 위원 : 만약 이것이 의결되어서 하시게 되면 제가 제안 내지는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이분과 관련된 자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생존해 계시는, 아마 고령자가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뉴욕, 유럽 등 이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면담 조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백남준이나 우리 미술사 연구에 원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한 가치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물론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계하셔서 정말 기록 문화유산으로 후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제목을 구체화 시키고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추후에 설계해서 추후 보고를 드릴까요? 일단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정갑영 위원 : 이렇게 하시죠. 담당부서에서 우선 관련 전문가 회의를 한번 하세요.

정병국 위원장 : 회의는 여러 차례 했어요.

정갑영 위원 : 여기 회의를 보면 그냥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 조사연구에 대한 회의는 없어요. 위에 그냥 잔여예산이 발생했다는 것과 건축미디어아트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되어 있지 이것에 관한 회의는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맞는 전문가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뭘 다루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대강의 비용추계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한 달 뒤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업처럼, 연구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희 팀에서 비평사업도 합니다. 비평사업을 할 때 그 사업도 최대 1억 원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올라온 것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하고요. 이것은 용역지시서가 있는 용역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용역사업이 되는 거라서요.

정갑영 위원 : 용역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그런 건가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맞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정갑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거든요. 백남준에 대한 키워드는 있는데 이 조사연구 과업에 대한 내용이나 범위가 지금 불충분하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연구 공모가 나갈 때 과업 범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공모 요강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말인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남준 아트센터도 그렇고,

정갑영 위원 : 용역이든 아니든 이 사업을 공모한 주최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기본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제목을 주고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13페이지에 필수 연구용역과제가 있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중장기사업 연구용역도 해보고 발주도 해보면 소위 용역을 발주하는 주최 측의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중장기니까 3년 계획이신가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단년지원입니다.

성기숙 위원 : 단년으로 1억 원으로 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올지?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기초조사만 1억 원이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2032년까지 중장기사업의 과정으로 전체를 놓고 하니까 “이게 맞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비평사업에 1억 원이라고 하면 비평사업을 하는데 어느 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워낙 조사연구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앞으로 7년의 과정을 밟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왔을 때 다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범위까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어디까지 하자는 부분이 나오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아요.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붙여 놓으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미진 위원 : 첨부하면요. 이 건은 지원공모사업으로 형식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순되는데요. 지원조건에는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에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순인거죠. 설계를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게 공간지원 사업에서 남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백남준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백남준 미술관도 있고 다른 미술관도 다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조사연구를 하는데 공모를 해서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직접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얼마라고 얘기가 되는데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자투리 예산 1억 원에 대한 소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 문예위에서 직접사업으로, 여기에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참고로 이미 의결해 주셨던 건이고 공고문이 상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

늘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난 회차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공모하겠다는 것을 의결 받는 것이거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지금 직접적으로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겠으나 민간경상보조는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인데요. 자투리 예산이 있고 효과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추진을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공모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혹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류재수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모 요강에 붙임3을 조금 고친 다음에 그리고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할 때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지원조건을 통해서 의결해 주시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역 하는 방식으로는 못 하니까 대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요강을 통해서 다잡고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의결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조건으로 제시해서 완성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떠신가요?

구문모 위원 : 요강을 상세하게 쓴다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제목을 구체화하고요. 요강을 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으로 해서요.

구문모 위원 :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도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결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38호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어떤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지난 4월 위원회 때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서 기존 3개 소위원회로 유지를 하면서 명칭과 실행계획 그리고 소위원회별 세부 담당할 과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외에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TF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자고 해서 TF팀 1개와 소위원회 3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위원님별로 소위원회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요. 24페이지 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참여 의사를 주신 소위원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위원회 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요. 경영전략소위원회 같은 경우 구문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진각, 서승미, 성기숙, 왕치선, 이훈경, 장미진, 정갑영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배은주, 서승미, 성기숙, 왕치선, 이훈경 위원님이 참여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구문모, 김미라, 김진각, 배은주, 장미진 위원님께서 참여 의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을 올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비상임위원님께서 참여하기로 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혹시 이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요. 24페이지 표를 보시면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소위원장 임명 위촉 부분을 기재했는데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혹시 확정이 된다면 위촉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의결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소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확정하고 나서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와서 확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것 자체를 논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소위원장 안을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장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3개 소위원회와 소속 위원님들까지는 오늘 확정하는 것으로 하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연되었죠? 우리가 이번에 구성되면 활동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활동기간은 23페이지를 보시면, 임기는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 23일부터 1년. 보통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TF팀으로 운영되는 것 외에는 1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 22일까지로 임기가 정해집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3분의 2의 임기가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러니까 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신규로 구성되면 신규 구성 후 1개월까지로 소위원회 임기가 수정됩니다.

성기숙 위원 :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병국 위원장 :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 연장하고자 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일단 1년으로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성기숙 위원 : 규정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면 임주연 본부장님 말씀처럼 5월 22일인데 이번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님들이 연말까지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소위원회 운영규정 4조에, 조금 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새로 구성될 때는 각 소위원회 임기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1개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1년이고요. 내년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신규로 구성될 경우에는 그 이후 1개월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1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인데 7개월짜리 소위원회가 될 위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 후발로 들어온, 작년 8월부터 활동한 3명의 위원들은 지금 5~6개월 소위원회를 했고 지금 시작해서 하게 되면 7개월짜리 소위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회도 향후에는 9인과 3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임기를 맞추는 작업도 구상하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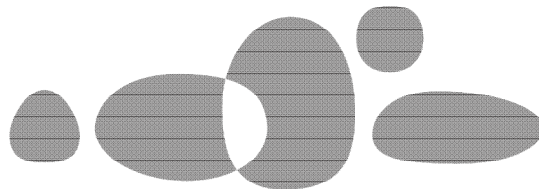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불편하죠.

성기숙 위원 : 불편한 것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1년짜리라고 해도 그렇게 길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5개월 하고 그다음에 구성해서 7개월짜리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경영전략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구문모, 김진각, 서승미, 성기숙, 왕치선, 이훈경, 장미진, 정갑영 위원이고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배은주, 서승미, 성기숙, 왕치선, 이훈경 위원님입니다.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구문모, 김미라, 김진각, 배은주, 장미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추후 각 소위원회별로 결정해서 올리면 그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입주작가 선정 결과에 대해서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2025년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입주작가 선정 결과보고로 26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의결이 완료되었고요.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입주작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개요는 1번에 나와 있고요. 총 10명의 작가로 1기 5명, 2기 5명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2번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지원접수를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했고요. 사전평가로 서류전수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오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작가선발을 목적으로 시각예술 장르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국내외레지던시와 이후 아트페어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심의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준은 작가역량과 창작활동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접수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총 251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경우인 결격을 제외하고 22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7페이지 심의 결과를 보시면 1차로 서류심의 결과에서 전수검토를 거친 후에 2배수인 총 22명을 인터뷰심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요.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의를 한 결과 국내 4명, 해외 6명으로 총 10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도 회화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안에는 영상이나 미디어 등 다양한 사운드 작업이 다 포함되는 데요. 그리고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분야가 선정되었고요. 권역도 국내작가 4명에 이어서 일본, 베트남,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모잠비크 등 다양한 권역을 망라하는 작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선정된 작가들의 세부내역과 주요 경력과 분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경력과 전시, 국제적인 활동내역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수별로 5명씩 선정되었는데 혹시라도 중도 포기 작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대상자 3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심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은 5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전시에 참여를 했다거나 관련한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심의 회피를 진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중복수혜가 불가한 사업인데 제출하였거나 아예 서류를 안 내신 경우에는 결격이고 그 내용들이 3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오늘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입주를 진행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보는데요. 지원심의에서 선정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본 회의에서는 결과물을 다음 사업에 환류를 한다거나 분류를 어떻게 한다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보관을 하고, “끝나고 나서 보관을 하는 게 아카이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작품을 받는 것은 없어요.

구문모 위원 :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품은 받을 수가 없지만 결과보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 전시를 개최하고요. 이 작가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미술관과 전시장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이 작가들의 성과를 집대성해서 도록이나 리플렛을 국영문으로 만들어서 국내외로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사업이 단년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후속 작가들이 참고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그 부분은 당연히 이번에 입주하신 작가들의 성과들이 그 다음 해에도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강평과 함께 네트워킹을 만들고 사전에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문모 위원 : 죄송한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미라 위원 : 이게 지난 회차 회의부터 나왔는데요. 처음 해보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장르도 확장하고 정시공모에 대한 인바운드 레지던시로 확장해 보는 가능성을 올해 타진해 본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다 답아서 향후 네트워킹이나 평가,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분들이 3~4개월, 짧게 1기와 2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신 작가들은 사실 모르는 도시에서 3~4개월 있다고 엄청난 신작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 레지던시 대 레지던시로 네트워킹을 하든가 또는 저희가 하는 아트페어라든가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한번 1기로 입주할 했으면 3개월 지나서 가면 그만이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아티스트 네트워킹으로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2기와 3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본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이 부분이 잘 축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무엇으로 가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과지표를 정량, 정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서 레지던시를 운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1년 동안 할 것이니까 그 사이 사이에도 한번 레지던시 사업 현장에도 시간이 나실 때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바운드 처음 하지만 아웃바운드 레지던시는 18곳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에 있는 어느 레지던시 사업보다도 한국 아르코에서 하는 레지던시 사업이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계속 연구를 하고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사후 전시. 전원을 전시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팀 정도만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전원을 전시해 주고 더 나가서 아트페어의 전시부스까지도 아트페어 측과 협의를 해서 마련해 주는 작업을 해서 저희들도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간에 세미나도 같이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글로벌 예술창작 입주작가를 지난번에 의결할 때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신청지원자가 251명이어서 저는 이 회의자료를 보고 “이렇게 수요가 많구나.” 그래서 좀 놀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경력을 나열해 놨는데 나름 다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예술대학 무용센터 졸업자도 여기에 있고 예비선정자 중에 영상 부문도 있어서요. 이게 단지 시각예술이 중심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정자들이 권역별, 남녀 성별로 고르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령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요. 선정된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미라 위원님 제안에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결국 연계프로그램으로 이어져서 아르코에서 이 사업의 결과치가 우리 시각예술의 이즘이라든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작가가 탄생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예전에 ‘피나 바우쉬’ 라는 독일 무용가가 전 세계의 도시를 돌면서 도시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작품 창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의 작업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브랜드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여기 국내외 입주작가들이 오면 레지던시를 하는 기간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자산이 있는 지방 같은 데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자산을 소재로 한 작업들을 했을 때는 윈윈하는 효과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먼저 연령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개요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당초 의결을 받을 때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40세 미만의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가들은 40세 미만, 주로 20대에서 30대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연계프로그램 결과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위원님 들께도 조언을 여쭙면서 하겠고요. 말씀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든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K-투어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5시 10분 배은주 위원 입장)

정병국 위원장 :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응모율 굉장히 높죠. 25대 1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에서 한국에 오고 싶은 예술가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관심이 있는 건 아르코가 한다니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니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정말 좋은 레지던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진 위원 :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엄청났잖아요. 국내에서 161명이 지원을 했는데 4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위원회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을 받았고요. ○○○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예술위와 서울문화재단 양쪽에서 다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가보다.” 라고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구나.” 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인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예. 사실 이것은 수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 사업들 중에서도 중복수혜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뒤에 결격에도 있지만 올해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선정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될 수가 없었고요. 떨어진 분들 중에도 사실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분들. 그러니까 국제레지던시를 지원했던 작가들 중에는 사실 대부분 일정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니면 다른 재단에서 수혜를 받은 경력이 많은 분들이 좀 많 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이분들을 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와 서류 그리고 인터뷰에서 가장 탁월한 분들로 선정이 된 것이라서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다.” 라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결격사유 중에서 중복지원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경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올해 국제교류 사업으로 받았거나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을 받았을 경우 올해 중복은 안 되는데요. 전년에 받았던 것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미라 위원 : 작은 것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주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 타 장르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있잖아요. 공연이나 전통, 연극, 전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그분들한테 초대권을 드려서 계시는 동안 10개 이상 저희 사업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아트패스’ 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마음껏 자율적으로 볼 수 있게요. 그렇게 해 주면 저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레지던스 중에 좋은 사례를 분명히 뽑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표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지표가 꼭 전시회를 해야되는 부분을 더 자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이 정도 능력으로 뽑혀진 작가들이라면 더 자율스럽게, 그러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레지던시 사업으로 여기에 와서 작업이 중심이기 보다는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외에 했더니 교외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다가, 그래서 시내에 얻다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공모 절차를 해 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네트워킹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과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트패스’ 는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제대로 된 레지던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한 달에 한번 정도 자기 오픈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과정 정도를 보여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레지던시를 하는 기간에 오픈하우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과정을 둘러보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위원님들께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잘 반영하고요. 또 조언을 주시면 사업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2페이지 체육기금사업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월 말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대면으로 직접 다 논의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안건을 오늘 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못 드리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속도를 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늦게 갔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나와 있듯이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있고요. 지원 사각지대인 원로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산은 7억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기금사업으로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이 됩니다. 국공립 소속 예술단체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하고요. 연령은 60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고가 나갈 때

“내년도 원로예술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예정.”이라는 예고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로예술인의 나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연적인 특징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고는 나간 상태입니다.

단체당 1개 공연만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와 다르게 기획자나 무대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소풍, 의상)는 원로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가 실연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장르별 상세 내용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다 50% 정도로 올라갔고요. 다만, 현대무용과 발레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를 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모니터링을 갔을 때 느꼈던 게 연극 분야의 엑스트라나 카메오 출연 원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무형문화재 등 전승지원금을 받고 계신 보유자나 전수조교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제 도입에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신청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왔고요. 문예기금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사업에 대한 총량 제한 건수도 적용을 했고요. 총량은 미달하지만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 등 굵직한 사업에 들어오는 단체는 해당 작품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지 말라고 안내가 나간 겁니다.

34페이지 지원신청 접수 결과를 보고드리면, 10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9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아마 참여비율 확대 부분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제외로 신청 감소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라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현황은 64%대 36% 정도로 신청이 되었고요. 행정 결격이 6건이 있어서 103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 6건 중 4개는 붙임 자료3에 나와 있는데요. 44페이지입니다만, 전승보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건에 맞지 않은 분들이 들어온 게 4건이 있었고요. 2건은 창작주체에 지원사업을 받는데 단체명을 좀 바꿔서 들어왔고 체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을 걸러서 6건이 결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03건이 올라갔습니다.

지원심의 기준 관련해서는 크게 이 사업이 원로예술인 주체로 되어 있고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봤고요. 사업계획의 충실성이나 단체의 수행 역량을 봤습니다.

일전에 이 지원심의 기준 관련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타당성’이라는 말이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주축’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양적인 주축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양적과 정성적인 측면을 같이 보겠다는 부분은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동시대성이나 독창성 여부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인데 객관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주셔서 지원신청서 내에 최근 3년간 수혜 이력이나 언론보도 건수나 수상경력 등 실적 제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단체들은 대체로 자기 단체들의 역량이나 작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다 내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을 했습니다.

심의 방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36페이지 심의위원 구성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무처에서 심의위원 풀 안에서 지정을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체육기금이지만 장르별 비상임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의견 협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배분은 36페이지 하단부터 3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37페이지 두 번째 표의 맨 오른쪽 쪽이 장르별 예산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릴 때는 19개 정도로 해서 23개 단체 선발이 가능하고 23개라고 했을 때 평균

적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안내를 드려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38페이지 심의 추진 결과로 전체 2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예산 배분 과정에서 100만 원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합심사 결과 때 1위와 2위를 차지한 단체에게 50만 원씩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부분에 대한 신청률 대비에서도 약 73.9%대 26.1%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회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접수를 해 주시면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붙임자료는 지원심의 결정 내역입니다.

그리고 심의 총평도 첨부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선정할 때 동시대성, 독창성도 좋기는 한데요. 세부적인 것을 보면 재공연이 있고 창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재공연이 많을 텐데요. 혹시 재공연과 창작공연하고 어떤 밸런스를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런 밸런스를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창작 초연과 재공연은 있는데요. 주로 과거에 호평을 받았던 작품 중에 다시 한번 그 멤버들이 모여서 하려는 경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초연도 좀 있었습니다.

구문모 위원 : 원래 성격이 원로들 같은 재공연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창작공연 자체를 어떻게 하면, “창작공연을 하면 합격률이 별로 없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총평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작 초연 같은 경우에는 극작이 원로이신 경우에 특히 심의위원들이 생각을 해 주셨고요. 형태가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위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문모 위원 : 별로 없다는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장치가 혹시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것 역시도 어느 정도, 6대 4인지 7대 3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 됐든 그것은 암묵적이든지 내부적인 게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말씀해 주신 내용도 꼼꼼히 잘 살펴서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한 말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예술인지원 사업에 취지는 원로예술인에 대한 활동 향유권 지원보장이잖아요. 예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금액으로 초연작이나 뮤지컬을 실연 공연한다는 것은 예산상 금액이 부족하니까 기존 사업으로 받았던 사업에 원로예술인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협업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기존에 사업을 받고 원로예술인을 50% 출연진으로 했을 때 같이 주관하거나 주관이 허용되

는 사업인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기존의 사업을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동일 작품에 대해서 받으면서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지금 받은 예산으로 오로지 공연을 실연하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일부는 총사업비 전체를 지원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으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저희 공모사업을 보면 중복지원으로 같은 사업명으로 다른 데에 지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정을 받고 다른 기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 작품이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사업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기숙 위원 : 원로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으로 이어지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체육진흥공단에서 수탁으로 할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원로예술인의 기준을 65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라고 해서 타당한 것 같고요. 5년 후에는 또 70세로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34쪽을 보면 우리 무용에서도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로 크게 장르를 나누는데 무용은 신체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무용과 발레 같은 경우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서 참여율 미충족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도록 장르 특성을 감안해 주신 부분, 또 연수단원지원사업 2건 이상은 수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다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여기에. 이것은 아마 예술위에서 이것까지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33쪽에 6번을 보면 ‘사업목적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무형문화재 등 전승지원금 대상자는 참여 불가’ 라고 해서 행정 결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이, ‘무형문화재’ 라는 용어도 이제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무형유산’ 으로 표기를 하니까요. 공공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승지원금이 과거에는 보유자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종목. 그래서 우리 무용으로 보면 승무, 살풀이, 태평무. 이런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한테 정액으로 월 2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 굿이나 농악, 탈춤 등 단체로 이루어진 데는 개인보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보존회한테 정액으로 5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해서 제외를 한 것 같아요.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원로예술인 지원에서는 제외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전승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하면 단체종목으로 돼서 단체에 월 500만 원이 나가는 쪽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것은 유념해 주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배은주 위원님과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의견을 드리자면, 원로예술인은 사실 80년대 90년대 당시에는 최고의 작품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작년도도 원로예술인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받으셨다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재공연이라고 할지라도 시대가 20~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상이나 무대장치를 모두 새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무용 같은 경우 1개 단체 당 3,000만원에서 많아야 4,000만 원 정도로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고려해서 구상된 지원사업인데 지원금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특히 창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창작주체나 창작산실 같은

경우 다년간 해서 1차년도에는 리서치를 한다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원로예술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위원회 측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체육기금에서 문예기금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제가 올해는 말씀을 아직 듣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몇 %를 문화예술에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체부에서 “이 사업비는 이쪽에서 이 기금을 갖고 쓰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리고 ‘무형유산’ 용어 부분이나 단체 부분은 더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견을 좀 들었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것은 좀 개선시키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증액 부분도 문체부와 같이 얘기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안녕하세요, 인문정신확산팀장 이종국입니다. 제가 2월부터 네 번째 만에 이렇게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말에 진행된 2025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지원심의 결과보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개요를 보시면 총 5개의 세부 사업으로 96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시면 전체 비상임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인문 분야 심의위원 후보군 추천을 의뢰드리면서 동시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는 서류심의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따가 이후 페이지에서 심의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공교롭게도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과 같은 시일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최종 ‘길위의인문학’, ‘지혜학교’ 그리고 ‘청년인문실험’ 3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사업은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인문프로그램 2가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기초광역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협력형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보기 위해 방향을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올해 접수 건은 1,578건인데 이 중에 행정 결격을 제외한 1,551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선정결과입니다.

‘길위의인문학’ 과 ‘지혜학교’ 는 총 1,000만 원씩 프로그램 당 정책지원으로 애초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정했구요. ‘청년인문실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 계속 참여했던 팀의 지속적인 인문실험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만 원 상향한 것으로 트랙을 2개로 나눴습니다. 총 100팀을 선정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심의를 하게 될 ‘청소년인문프로그램’ 과 ‘중장년인문프로그램’ 은 각각 13건과 16건을 예비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 20인의 심사위원이 전수검토를 하면서 거의 1.1대 1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선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룹 인터뷰로 2차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경쟁률이 2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 100억 원대 규모의 지원건수가 많고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소액다건형 지원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중앙에서 탑다운 형태로 진행하던 방식을 각 지역과 함께 지역에서 바텀업 방식의 특색 있는 인문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일반적인 지원신청 분포가 조금 다른데요.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원신청접수가 43%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수도권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보면 다분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 48페이지 17개 시도별로 세부 선정현황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여전히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층 더 들어가면 이 사업이 2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아까도 다른 사업에 대해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 받던 시설들이 주로 받게 되는 고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팀이 8월 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할 때 언급해 주셨던 것이 이 사업 자체가 2013년에 ‘길위의인문학’ 으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0년이 넘어가는데 전 국민적 인지도나 우수사례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배분형 형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전담 기관으로 2023년에 지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하면서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성과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운데 표에 보시면 여전히 도서관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시설의 쏠림현상이 있고요. 위원회가 전담 기관을 하면서 점차 생활문화시설이나 지역의 서점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이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사업이 48페이지 하단 표에 있는 전년 대비 ‘청년인문실험’ 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연극이나 시각 쪽의 청년예술가들이 팀을 짜서 우리 인문프로그램 쪽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신청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원심의규정에 따라서 15% 내외의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49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시면 총 20인의 통합공모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 3대 기준을 약간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50%에 가깝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문 분야 전문가 풀이 부족했는데 총 5인의 위원님께서 17인의 전문가를 추천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새벽에도 의문사항을 메일로 남기실 만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0페이지부터는 애초 공고문에서 나온 결격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 옴부즈만도 작년에는 5건의 접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사전에 조금 더 설명회나 애매모호한 문구들을 수정하면서 올해는 1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사업별 심의기준에 있어서는 구문모 위원님도 그렇고 사전에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특히 심

의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 청소년인문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실 예정입니다.

53페이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700개 전국의 선정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70% 육박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사설도서관의 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관행적으로 그동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여러 시설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예산이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직접 받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서관협회에서 카드를 나눠줘서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8인이 앉아서 그 예산집행을 해 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업무대행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직접 해야되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소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 점이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만 행정관리 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뵙게 되면 그런 효과들을 잘할 수 있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요일에 청소년, 중년인문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되면, 특히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다시피 문화일반 분야의 비상임위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KPI 설정이라든지 사업운영과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이 시범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게 잘 도와주시기로 말씀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예. 우선 45쪽 2차 서류심사에 보시면 심의방법에서 10개 그룹별 채점 결과 보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정이 어떻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어떤 보정이 있었나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여기에는 단지 않았는데 개인평가도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관대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등 작년까지만 해도 3인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그룹으로 나눠서 배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심의위원 그룹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채점하신 경향을 통계적 기법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정이 된 것입니다.

구문모 위원 : 어쨌든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서 투명성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 과거 활동했던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으로 시스템을 갖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발표하실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위의인문학’ 사업을 갖고 나중에 제안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제안서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그것은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제안서를 쓴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오랫동안 했던 데이터가 없으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문예위가 유감스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 설계했다고 하면 그 설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나온 것에 대

해 “심의결과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어찌라는 겁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예위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때에 충분히 반영도 안 되고요. 아까 김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오픈 액세스가 안 되면 정말 창의적인 것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게 문예위의 플랫폼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신경 쓰는 것이니까 서운하시더라도 제 진정성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시 48분 김진각 위원 온라인 입장)

김미라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소액다건 사업이어서 굉장히 건수도 많고 애를 쓰셨을 텐데요. 50페이지를 보면 모아놓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행정결격이 27건이라서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NCAS의 분류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이러저러한 사유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작성한 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격사유 때문에 내용 자체를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되게 아쉬운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행정결격 관련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에서 기능 개선을 한 것이, 열심히 썼는데 미처 지원신청서의 필수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상으로 아예 필수서류에 대한 첨부파일이 없으면 신청제출이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었거든요. 다만, 여기에 있는 대로 파일이 깨지는 경우는 일일이 열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세 이상이 겨 있는 부분에 대한 결격. 그다음에 중장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지자체 소속, 민간재단이 신청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신청한 공고문 미숙지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타 사업에 지원 신청했던 것도 그 사항은 사실 양식은 그렇게 썼지만 애초에 자격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세부 유형 중에 혼돈을 안 시키려고 일부러 양식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양식을 그냥 관행적으로 숫자만 바뀌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문구들은 다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인문 분야 매개인력 강화사업’ 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45페이지 심의사항 및 세부 내역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보고를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지정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아까 비수도권, 이 사업의 신청률이 43%에 육박할 정도로 표면상으로는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지만 대부분 신청서가 “비수도권이니까 조금 더 봐줘야지.” 이런 차원으로 심의위원이 접근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인문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연결하는 매개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문체부에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협회에 작년에는 이것을 재위탁하면서 7억 원의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직접 하면서 그 예산 대신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부산, 대구 쪽의 지역에서 인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지정사업이라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 20인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다음 달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진 위원 :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지역대표 기관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조정·보완만 하시는 건가 보네요. 공모사업이 아닌 거죠?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기획형으로 문체부에서 이렇게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자고 해서 도서관협회를 지정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차게 정리한 다음에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문체부 사업이었는데 문예위로 올해 이관되어서 실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4월 전체회의에서 인문지원사업에 대한 비상임위원의 참여 여부가 많이 논의되었다가 일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건은 유보가 되었구요.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비상임위원은 인문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내지는 자문으로 참여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의 집요한 열정으로 문체부 것이 문예위로 작년에 왔는데요. 이게 만약 문예위에서 지속적으로 존치가 된다면 저는 문예위의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업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치 여부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담기관을 문체부에서 3년마다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문예위가 후속으로 전담기관으로 계속 지정돼서 갈지에 대한 여부. 그렇다면 올해 사업시행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명 카테고리도 크게 5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기존 문체부에서 하던 것과 문예위에서 인문사업을 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이게 문예위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문체부에서 하던 것과 달리 차별화 내지는 독창성 구현이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문예위에서 했을 때는 순수예술이나 기초예술에 대한 어떤 미학적 완성도, 예술적 성취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긴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인문사업은 오랫동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실·국장님들은 아쉬워하는 사업이고 복귀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의 씨앗이고 마중물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연계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관들이 문체부 소속기관이고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효율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문예위 측에 장기지속으로 인문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1월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전략이 많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제목만 같고 어마어마하게 바꿨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작년 8월에 이 사업이 우리 전담기관으로 와서 전담부서가 처음 생긴 것인데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성과관리에 대한 측면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공모도 마찬가지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에서도 100억 원대 규모로 집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요. 그런 성과는 그 어떤 기관이 그동안 했어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계획이 잘 세팅된 만큼 이 부분을 잘 성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직접 도서관이나 출판진흥원을 통해서 했을 때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획사한테 아웃소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들이 돈을 받아서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에서 문체부 직원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만 끝냈는데요. 어떤 사업은 보니까 1인당 수혜가, 그러니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공동으로 해서 캠프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국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천 몇 백 만원이 배정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길위의인문학’ 중에서 강사 한 사람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10명인데 1인당 따져보니까 하루에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보고 제가 경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이대고 장관한테 “말이 되냐?” 그래서 일단은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인문학법에 의거해서 엄청난 예산도 나오고 이것을 제대로만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고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문학 축제를 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전국적으로 중요한 도산서원이든 사찰이든 또는 사유원 등 상징적인 장소를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중앙에서 하는 기획된 프로그램을 지역에서도 직접 향유할 수 있게 해보자. 심지어는 지금 뉴욕에 있는 공공 시립도서관하고 공동프로젝트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작가가 가서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포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연회도 동시에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네트워킹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켜서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나 어떤 성과보고에 대한 통계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모 위원님이나 김진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심사에 참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 판단에 “구속되시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위원님이시니까 어떤 것에도 관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 참여를 하셔서 컨설팅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동의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구문모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하실 때 성과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을 처음 구축하는데 심의기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것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평가하면서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모 위원 : 한 다음에 보다는 보시면 ‘청년인문실험’ 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험으로 하는데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종의 TF 팀을 위원님들끼리 구성해서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기준이든 관리든 어떻게 할지가 파악 되어야지 다 끝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모가 끝나고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사업이 이 건만이 아닌데 이 건만 해도 700여 건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할 수 있게 TF팀을 짜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진행하세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예.

장미진 위원 :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얘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위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일주일 내로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전문가 의견조사를 해서 일주일 내로 온라인 보고라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

을 기다렸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런데 지금 한 달만에 왔더니 그냥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좀 그렇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담심의를 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구문모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을 잡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샘플링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은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늘 중앙조달청에 조달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아니라 전수 모니터링을 애초에 했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워낙 방대하게 양이 많으니까 세세하게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수평가를 통해서 상위 20%는 내년에 별도의 지원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연속지원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에 대한 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월에 인문정신확산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4월입니다.

성기숙 위원 : 진행 외에 아까 장미진 위원님의 말씀, 그것 외에 아까 팀장님께서 비상임위원은 이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과 자문의 역할, 그런데 지금까지 특정 위원님과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하셨나요?

이종국 인문정신확산팀장 : 아니요.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성기숙 위원 : 장르 위원들도 토대가 되는 것이라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참여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일괄돼서 문예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전은 202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준비계획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공모 준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공모준비 첫 단계부터 사무처에서 검토한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하반기 일정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를 미리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우선 1번 공모 준비 협의체 관련해서는 예술지원본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팀이 같이 각 실무자들

중에서 대리급 이상 총괄담당자를 선임해서 지금 공모준비 협의체를 운영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NCAS시스템이라든가 대외에 대응하면서 예산과 평가 관련 이슈로 기획조정팀에서도 일부 안전에 따라 참석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은 이 공모준비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모 준비 추진 일정(안)을 보시면, 9월 말에 항상 공모계획(안)을 올리고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일부터 장기적인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했던 것처럼 9월 말에 전체회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공고문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공고문만 게시하고 실제 민원인들, 지원신청자들이 연락해서 문의할 시간이 없고 바로 휴가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당초에 진행되던 것보다 1~2주 정도 앞당겨서 공고계획안을 게시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일정 조정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체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면 일단 진행경과는 꾸준히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고 서면 의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진행된 사항을 보시면 이제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개선 부분이라든가 사업별 세부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충분히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 기존에는 사업설명회 공고문 자료 초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년도까지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특정 사업이나 주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예산안 대응과 더불어서 공고문 준비도 각 사업팀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방향과 더불어서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업설명회까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작년 까지 사업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보니 요즘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참석자가 거의 없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영상중계로 진행해 보고요. 다만, 지원신청 컨설팅이라든가 안내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양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 검토 개선 과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 그리고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있던 사항을 리스트업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된 내용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 추가해서 사무처에서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 시기 다각화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업무보고 때 무용이랑 전통예술 분야에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을 일차적으로 사무처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지금 일부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식공모 일정을 맞추기 보다는 해외 협력기관의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할 경우가 더 많아서 일단 국제교류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고요. 지금 평가결과 환류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당장 공모시기 일정 조정은 좀 어려워서 국제교류사업부터 올해 적용을 해볼까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구문모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저희 팀에서 1차 검토는 시작한 상태고요. 검토를 했을 때 사실 계량화 지표는 부족한 상태고 사업별로 동일한 것을 물어보지만 워딩이 다르거나 굉장히 모호한 심의기준이 있거나 이번에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조금 개선하면서 비교해 봤더니 공고문이나 실제 사업목적에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 갑자기 요구되는 목적성이 드러나거나, 실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자격 공통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나 미정산 단체는 지원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지원선정 사업 건수 총량 제한은 지난해 2건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식년 적용이라든가 혹은 이 2건도 1건으로 더 줄일 수가 없는지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의견이 나

오고 있는 상태라서 재검토해서 변화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심의 결격 및 감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심의결과를 보고할 때,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격이 너무 많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안내가 부족했거나 프로세스 안에서 본인이 미흡했던 사항을 발견할 수 있게 절차상 보완할 수가 없는지?”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도 후보단을 구성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무처에서 의견을 조합했을 때는 올해 충원을 하더라도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1번만 참여하고 종료되는 경우라서 유효하지가 않고 매년 충원했을 경우, 저희가 2023년, 2024년 충원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외부적인 시각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700명 중에서 심의에 참여한 인원을 확인했을 때 349명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5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분야라든가 수탁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서 구성이 어려운 분야도 물론 있지만 지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예외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충원하지 않고 내년에 전면 개선을 하면 어떻게 일차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 이후 심의제도(운영) 개선은 심의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이 현재 규정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시거나 혹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면 2명이나 3명의 평가가 평가의 당락을 결정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7명으로 늘리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신청 편의성 개선 그리고 추진방식 개선 그리고 연계 후속지원 강화는 이전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입니다. 심의위원 충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말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사무처에서 검토했을 때 올해 충원하면 사실상 2023년에 전면 개선을 해서 600명 대로 줄여놓고 매년 다시 충원을 한 상황이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3년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훈경 위원 : 기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기간 때문에도 그렇고 내년에 전면 개편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따져보니까 심사를 한 사람들이 700명 중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인데요. 연극, 뮤지컬 분야의 경우는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50%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인물이 거의 50%인데요. 그래서 사실 연극 쪽으로는, 타 분야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연극은 올해도 역시 심의위원이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기간 때문에 내년으로 이것을 미룬다면 올해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연극 쪽은 올해도 여전히 수혜자로 신청하신 분들을 다 빼고 나면 너무나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혹시 대체 방법을 고민해 주실 여지가 있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우선 말씀드렸듯이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예외적으로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서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작년에 마련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뮤지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부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특

정 분야나 혹은 특정 세부 분야라든가 정말 인원이 부족한 분야는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총량 제한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량 제한을 건수로 하는 게 맞는지?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건수일 경우에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1건으로 국한을 한다면요. 그래서 보통은 금액으로 하지 않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과거에는 금액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제작년에 건수 제한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액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상승률이라든가 실제 부처의 요구로 건당 지원규모가 상승되다 보니까 금액 제한으로 하는 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어서 건당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심의위원 개선을 할 때는 전담이나 책임심의제 전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 풀에서 50% 정도밖에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누군지를 제가 장르별로 좀 알면 내년도 심사위원 추천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장르별로 심사위원 풀에서 심의를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을 정리해서 다 드리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심사를 못 하신 분들의 사유를 꼭 적어주세요. 불참하게 된 사유.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다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오늘 주시고요. 오늘 다 못 하신 것은 추후에 지원총괄팀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또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지원총괄팀의 김지영 팀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여러 진통 속에서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적용 사업을 실행했고 올해 후속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담심의 사업에 대한 리뷰 회의를 준비할 때, 공연예술팀에서 무용 분야의 전담심의위원 리뷰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지원총괄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무용 분야 전담심의를위원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회의가 늦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팩트 체크도 필요하고 공정심의 설문조사나 심의개선 및 제안사항에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요청했고 설문조사 원천자료 원본을 요청드렸는데 안 주고 계셔서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확인을 해보세요.

성기숙 위원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르별로 나와야지 통합으로 명기를 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심의위원들의 반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용분야 리뷰 회의가 지연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담심의 개선 및 제안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담심을 했던 위원들이나 특히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을, 그것을 제가 작년에 전담심을 할 당시부터 이게 끝나고부터 류재수 본부장님과 정창호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담심이 끝나면 여기에 참여했던 전담심의위원들이라도 또 전담심의관으로 참여했던 사무처분들과 심층적으로 이것에 대한 워크숍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원총괄팀에서 이런 문건이 와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원사업 공모 준비계획 보고를 하면서 5월에서 10월까지 격주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서 사업설계를 하시겠다고 하고 예술지원본부 5개 팀, 교류협력팀, 극장운영팀 등 팀장님들과 담당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비상임, 특히 전담심에 참여했던 비상임위원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명료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담심을 실제로 해 봤잖아요. 제가 그때 심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심층적인 워크숍을 하자는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용분야에서 현장업무보고, 분야별로 위원장님이 매번 참여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해 주시고 고생을 하셨고 사무처도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무용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업을 없애 달라”, “1개 단체가 4개에서 5개가 지원되는 것을 1개나 2개로 공정하게 해 달라.” 는 주문이 있었고요. 다년지원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지속 지원을 할지 삭감할지를 밀도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나 여론 수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2026년 지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짧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담심의관의 문제인데요. 우리 무용분야는 작년에 하셨던 ○○○ 심의관계서 임금피크에 들어가셔서 새로 선정이 된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담심이라는 것은 심의부터 평가, 모니터링, 환류까지 세트로 간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위원이 평가와 모니터링을 같이 가야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심의 못지않게 평가와 모니터링도 동등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용분야 전담심의관은, 창작주체 같은 경우는 청년도약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세트로 가면 되고 그밖에 심의하지 않은 분야는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들은 그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담심의 적용 사업과 비적용 사업,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공연을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가 한 개인이 하루 이틀 공연하는 것은 그날 가서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는 한 달간 열리는 것도 있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총량제도 나왔는데 그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전담심의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의에 참여하면서 회피, 기피, 이해충돌 서약서를 쓰면서 굉장히 공정성을 위한 장치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심의관의 배우자께서 참여하는 사업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그게 경연이 된 사업인데 거기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어서요. 과연 전문성 플러스 공정성 측면에서 과연 현장에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문예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 4월 25일에 제가 파주에서 올해의 신작을 심의하느라 줌으로 40분 정도 참여를 하고 후속으로 회의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회의에서 나가고 나서 논의가 되었던 논의 중에 우리 전담심의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께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담심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부를 결정할 때도 작년 10월과 11월에 엄청난 논란 속에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저는 심의와 평가 모니터링도 동급으로 중요한데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임위원들이 만약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했을 때 현장에서 전문성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지원총괄팀에서 작성한 전담심의제도개선 설문조사를 한 것에도 전문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장르를 전공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또 심의 자체도 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무대에 올라간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실제 카운트가 돼서 반영이 되었을 때 이걸 과연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공정성의 여부 문제.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절차를 논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은 의결을 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전담심의제를 포함한 심의제도 등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전문가토론이나 세미나를 해서 지난해에 처음 시범적으로 했지만 올해 전면적으로 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지금 설문조사한 것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구조를 꼭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안, 최종안을 만들어서 주세요. 이것은 언제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9월 최종으로 올라오고요.

정병국 위원장 : 9월에 올라오니까 이전까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숙의하고 논의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환류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부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실무진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다 체크해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나한테 해 줘야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회의한 내용들을 스크린해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려야 할 것은 전부 다 답변을 드리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3가지입니다.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임위원이 문화일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 그다음에 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담심의위원들은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예산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2개 이하로 하고 총량제를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은 안 받겠다.”, “그렇지만 모니터링을 다 하는 것은 내용을 수용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알려지면 심의한 위원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모니터링을 제한하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하지 않은 비상임위원들이 자기 전공도 아닌 것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예산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은 굉장

한 모순이고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용분야는 앞으로 지원심의 관련해서 문예위뿐만 아닙니다. 지자체와 재단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연속 세미나를 할 구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병국 위원장 : 어디에 나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한 가지 사항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원선정사업건수 총량 제한은 선정건수가 1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사업의 총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기숙 위원 : 모니터링 실시도 총량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처럼 TF회의를 5개 부서가 하는 것에 저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논의가 돼서 결과치만 가지고 여기에 와서 논의하는 것보다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다고 하면 실무진들이 반대할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다 접수를 해서 최종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과에 대해서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우리 위원회의 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해서 문체부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문체부 내부의 문체부 재정실에서 검토하고 조정값을 보내옵니다. 그 조정값을 보내온 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다시 56페이지로 돌아오면 원래 5월 중에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부처안이라고 해서 의결을 해서 문체부로 제출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수입예산 쪽은 통보를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서 현재 지출안은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안을 우선 보고드리고 수입안이 와서 최종 확정 내용이 오면 그 부분은 서면 의결을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면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5월 중에 제출해서 6월에 기재부로 넘어가야 하는 일정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전으로 5월 22일 버전입니다.

2026년도 부처안 편성 상황이 총사업비는 4,251억 원으로 2025년도 4,339억 원 대비 88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고 약 2%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15% 지출 감축을 요구했지만 예를 들어 예술향유지원 등에서 우선 감축을 하고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창작지원이나 예술인력육성, 가치확산 등의 기금 핵심 사업은 증액을 위해서 사업 간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개 영역은 전년대비 13.5% 증액해서 일단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부 사업별로 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가치확산부분은 전년대비 총 17%, 10%, 6% 증액 부분이 있고요. 저희 관광사업 전입사업이나 예술향유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습니다.

5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 증액분입니다.

예술창작지원 부분인데요. 예술창작지원 부분의 문학주간에서 문학주간 프로그램의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창작산실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건축전시, 건축분야의 창작산실 3억 원 그리고 문체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지역미술관컬렉션활성화 부분에 47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기재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예술극장이 건립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대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 30억은 신규 반영해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무대기술 119 사업은 정식 예산사업으로 도입해서 3억 원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네트워크강화 부분에서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지원금과 국제협력관 파견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에서 오늘 보고를 드렸던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사업을 바로 예산으로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3억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공간 부분에서는 그동안 대관료지원사업이 공연예술창작공간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술계 수요에 따라서 34억 원 증액 요구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비평 부분이, 단지 사업지원이 아니라 예술비평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전 장르 예술비평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인력육성 부분인데요. 무대예술전문교육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던 APE캠프 부분을 글로벌로 확대함에 따라서 6.7억 원 증액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형에 더하여 신규 유형으로 기술대학과 예술대학 간의 협업프로젝트를 신설해서 2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예비예술인의 현장경험, 발표 경험은 이미 총 4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신규 유형을 하나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술인력교육플랫폼 운영 복원은 운영하고 있던 온라인 문예예술 교육 플랫폼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복원하고자 요구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난달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부분이라서 현재는 그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받아준 내용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부분은 정부의 의지로 약 200억 원 규모로 추가 증액요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기재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요. 수입예산이 확정돼서 돌아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서면 의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문예기금 계획안을 문체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교체되면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추후라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문체부와 협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도 좋고 추후라도 임 본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협상하고 협의를 할 때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할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문모 위원 :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구조에 있어서 소프트든, 주로 소프트적인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예산구조에서 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문모 위원 : 전산시스템은 하드웨어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의기준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 제가 이것에 대해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여기 문예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예산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도 인프라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여쭙봤거든요. 그러면 내부 직원들은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보면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정부가 바뀌었을 때 협상의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에 있는 연구 인력이 있잖아요. 이 비용구조를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2026년도 부처안 총사업비가 15% 감축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문체부 소속기관은 동일비율로 15% 감액요구를 한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기재부에서요.

성기숙 위원 : 기재부에서 동일하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리고 구문모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6월 3일 이전과 이후로 저는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차기 정부의 예술정책 기조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열어놓고 유연하게 사무처에서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보고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6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제39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 종료)

